

보도시점: 2026. 7. 3.(금) 배포 즉시 /

배포: 2026. 7. 3.(금)

새만금청, 집중호우 대비 현장 점검 실시

- 배수시설·수위 관리 및 대응체계 점검 강화 -

- 새만금개발청(청장 문성요)은 7월 3일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새만금33센터 등 주요 현장을 찾아 대응 상황을 살폈다고 밝혔다.
-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늦게 시작된 가운데, 전국적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커 침수와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.
- 새만금개발청은 장마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갑문 관리 상황과 침수 우려 구간, 현장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.
- 특히, 새만금33센터 배수갑문 관리센터를 점검하며 집중호우 시 관리 수위(EL-1.5m) 유지 등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.
 - 또한, 집중호우가 예상될 경우 관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,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의 철저한 시설 관리와 대응을 당부했다.
-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“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현장 점검과 배수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.”며 “새만금 지역 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안전사고 제로(ZERO) 목표를 달성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개발사업국 사업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민수	(063-733-1320)
		담당자	사무관	최광걸	(063-733-1326)
			주무관	최종주	(063-733-1327)